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6호 【루계 제24984호】 주체10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로병대회를 가지게 된것은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경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이 참가하고있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제2의 해방의 날, 승리의 7.27을 안아오고 화선병사의 자세로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로병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이번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긍지높은 대회합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년대를 개척한 선렬들의 투쟁정신이 계승되는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인류자주위업의 운명과 전도를 안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다.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 과정에도 그러했지만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혁명투쟁에서도 가장 위력한 무기는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이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대회를 소집하였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시대적의무가 무엇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새겨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 당은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가장 열렬한 충정의 불씨가 되고 꺼지지 않는 애국의 횃불이 되며 천만군민을 원쑤격멸에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이 아끼고 높이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전쟁로병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전화의 불길속에서 체질화하고 끝없이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들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전화의 나날에 전선과 후방에서 높이 울려퍼졌던 이 구호에는 전승세대가 지닌 영웅적투쟁정신의 근본핵이 깃들어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고 혁명적수령관과 조국관, 고결한 충정과 빛나는 군공이 하나로 결합된 혁명전쟁이였다. 결사전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린 맹세의 편지들과 불뿜는 적의 화점앞에서 터친 《김일성장군만세!》의 웨침, 피묻은 당원증들과 금별의 위훈어린 근위군기들에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력력히 어려있다.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곧 백승의 길이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여기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것이 전화의 용사들이 지닌 억척불변의 신념이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에게서 따라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풍모가 바로 전화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된 충실성의 정신이다.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자, 이것이 전쟁로병들의 절절한 당부이고 우리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확고히 계승되고있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전쟁로병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더없는 보람으로, 최대의 의무로 간직한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해방후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온 우리 로병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삶의 전부였다.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는 진리를 뼈에 새기였기에 그들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 살붙이처럼 사랑하였으며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인민군용사들은 육탄이 되여 적땅크와 군함을 까부시였으며 후방인민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적들의 맹폭격속에서 발을 갈며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로병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더없이 진실하고 열렬한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조국땅우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용약 인민군대복대를 탄원하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전화의 그 열정과 투지로 애국헌신의 삶을 빛내여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전쟁로병들이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온몸을 초불처럼 불태우며 조국번영의 밑거름이 되여온 로병들의 고귀한 생애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된다. 이번 대회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결사의 조국수호정신을 백배해주고 최후승리의 애국적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전쟁로병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해온 견결한 투사들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우리 로병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라서도 동요와 비관을 몰랐으며 적후천리 밀림속에서도 미래를 락관하며 굴함없이 싸웠다. 불파4문의 포로적의 대병력과 맞서 3일간이나 월미도를 사수하고 불타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음악회를 펼친 로병들의 불사신의 용맹과 혁명적락관은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세계를 경탄시켰다.

로병들의 강의한 투쟁정신은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자랑찬 승리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의 고귀한 삶은 로병들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백절불굴, 이것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영웅조선의 배짱이고 기상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필승의 신심드높이, 굴함없이 싸워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의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여기에는 모든 로병들이 조국수호의 년대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도 혁명선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모든 로병들은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값높은 삶을 수놓아가야 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육체적로쇠는 있을수 있어도 정신적로쇠는 있을수 없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쳐왔으며 당의 온정속에 가장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여온 우리 로병들은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한모습이여야 한다.

로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체험자, 목격자들인 로병들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는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로병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로병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백옥같은 충정과 혁명적의리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기본력량을 이루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로병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로병들은 혁명의 계승은 곧 사상정신의 계승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후대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의 강자, 조국을 위한 길에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로 자라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로병들은 전화의 나날들을 늘 새겨보며 강성국가건설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혁명가는 한생을 어떻게 살고 빛내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로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로병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을 거울로 삼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오늘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211고지방위자들처럼 자기 초소를 조국수호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미제를 때려부신 그때처럼 군민대단결의 위력,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파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로병들을 존대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 높이 내세우고 위해주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한생을 빛내일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어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과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전시가요보급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견결한 반제투쟁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우리 시대의 리수복, 장호영, 조군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로병들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선렬들의 피땀이 스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7.27행진곡》을 비롯한 전승찬가들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로병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아끼고 존대하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천만군민이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대국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의의깊은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반제전승업적을 백두산총대로 빛내여나가자

###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반제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할것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4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반제전승업적을 총대로 더욱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화의 나날에 발휘된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승리,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처물리치고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린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한 전승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혁명강군으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또 한차례의 전승을 이룩한것과 같은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반제전승업적은 또 한분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정신력의 최강군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 62돐을 맞이하는 천만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여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끓어넘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반제전승의 자랑찬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자의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백두의 기상과 담력,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반제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하는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반미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위인상을 깊이 체득하고 대원수님들의 반제전승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육탄, 자폭도 서슴지 않던 영웅전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동치게 하고 전군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반석같이 세우며 5대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장병들을 우리 당의 사상이 팍 들어찬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군장병들은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속에서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사상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으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한다.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준비된 무적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39(1950)년 11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7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6월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6월

갱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10월

새로운 작전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2월

강건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1(1952)년 6월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4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7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8월

# 전쟁로병들이 안겨사는 태양의 품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촬영장, 전승의 광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환호하던 그날처럼 우리 원수님을 우러러 감격을 금치 못하던 로병들의 열광으로 달아올랐던 포석우에 서있다.

한없이 인자하고 뜨거운 정이 넘쳐나는 그이의 거룩한 영상을 뵈오며, 이 세상 누구도 서보지 못한 영광의 최절정에서 우리의 전쟁로병들 얼마나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휩싸였던가.

꿈결에도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 가슴이 너무도 벅차올라 청춘의 혈기를 되찾은듯 하던, 10년은 더 젊어진것만 같던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전쟁의 포화속을 靑春의 부르심을 받들고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값높은 부름이다.

한치라도 물러서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공장과 땅을 잃게 된다는,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부모처자도 뗏뗏하게 얼싸안을수 없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싸운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

청소한 공화국의 아들딸들이지만 자기의 참된 삶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영용하게 싸워이긴 전쟁참가자들,

년대와 년대를 넘어 우리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로, 성스러운 조국보위에로 파감히 고무추동하는 이들모두를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선배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극진히도 위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존대문제는 단순히 도덕에 관한 문제,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권위를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사회주의위업계승완성을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전쟁참가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고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이다!

이런 류례없는 의리로 전쟁로병들의 생을 값높이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념원대로 전쟁로병들모두를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선배로 존대해주시고 귀중한 재부인 그들의 넋과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신 우리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이며 수령님을 따라 승리의 7.27을 떠올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승리의 기념비, 천만의 마음속에 백승의 력사를 끊임없이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를 산악같이 심어주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 반미계급교양의 기본거점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평양시와 지방의 명당자리들에 훌륭히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인민군렬사묘,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영웅조선을 상징하며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각지에 꾸려진 인민군렬사묘들을 찾을 때마다 사람들은 나라마다 전쟁로병들은 있지만 그들을 숭고한 의리로 영광의 상상봉에 내세워 존대하고 영생의 삶을 빛내여주는 당은 오직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밖에 없음을 심장으로 절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들과 단란한 한가정이 되시여 자리를 함께 하신 성대한 경축연회와 전승절경축연은 또 얼마나 여운을 끌며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있는 것인가.

전쟁로병들이 평양에 올라와 국가적인 경축행사들과 경축공연관람에 참가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게 하여야 한다고, 전쟁로병들이 평양에 올라오면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그들을 만나 고무적인 말도 해주고 연회도 차려주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념품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사려깊은 정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쟁로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자신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 그들의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전쟁로병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길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전쟁로병들모두를 울리고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서 격정이 일어번지게 한 사변이였다.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우리의 전쟁로병들이 입은 군복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전쟁로병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입었던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전쟁로병들이 전쟁시기와 같은 군복을 입고 혼장까지 달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면 행사가 더 이채롭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마련해주신 군복이였다.

오늘도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청춘을 되찾은 군복차림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날, 격정이 절정에 달하였던 그날을 잊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전쟁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실 때, 전쟁로병들이 건강하여 1950년대의 정신을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꿋꿋이 계승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실 때 우리의 로병들은 영광의 최절정에서 세상을 통채로 안은듯 얼마나 일렁이였던가.

천지의 물처럼 마를줄 모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쟁로병들에 대한 열화같은 열과 정의 세계를 보여주는 숭고한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강철의 령장을 모신 영광의 절정에서 우리의 로병들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의 태양의 품에 안긴 비길데 없는 행복으로 하여 솟구치는 눈물로 두볼을 뜨겁게 적시였다.

로병들은 진정으로 무한한 행복에 웃고 울었다.

이 극적인 사실만으로도 세계는 참으로 비상한 충격을 받아안았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의리를 혁명가라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도덕적품성으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해 나서는 문제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세상을 울리는 이런 감동깊은 현실을 안아오실수 있는것이다.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령도자의 풍모를 닮는 법이며 당의 정치를 따르기마련이다.

전승 59돐, 60돐에 펼쳐진 불멸할 화폭들과 더불어 온 나라에 전쟁로병들, 승리자들을 아끼고 존대하는 사회적열풍이 더욱 뜨겁게 일고있다.

전쟁로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며 위해주는것을 전통으로, 사회적기풍으로 더욱 고조시킨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은 정신도덕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온 나라에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정과 열이 뜨겁게 흐르는 우리 사회의 일단인 전쟁로병들에 대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의리의 기풍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넘원의 발현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우월성에 대한 자랑찬 파시이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것을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사회적기풍으로 더욱 승화시켜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와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업적중 특출하고 불멸할 업적이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사상정신과 도덕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한것은 사회주의의 완성이 곧 사회의 주인인 인간자체의 완성을 의미하며 인간완성에서 사상정신과 도덕적완성이 관건적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 전쟁로병들의 빛나는 삶이 있고 민족과 혁명의 창창한 앞날이 있다는것은 오늘 우리 조국의 정이적인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인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대를 이어 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는 절대적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장장 반세기가 넘었다.

반세기가 아니라 천년이 흐른다 해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참가자들, 승리자들은 금은보화와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보배들이며 조국청사에 무궁토록 찬양되여야 할 귀중한 혁명선렬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로병들은 전쟁때에도 위훈을 떨치였고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각이한 초소들에서 수령님을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여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전화의 그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로병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의 별장경비를 서주거나 자기들의 가슴에서 빛나던 혼장들을 팔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가 제기되고있는 때에 류례없는 전쟁로병존대기풍으로 세계정치계를 진동시키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해두해 세월이 갈수록 전쟁로병들의 머리에 더욱 흰서리가 앉는것을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다.

우리 원수님의 웅심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전쟁로병들을 진심으로 존대하고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는 혁명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성스러운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련면히 고수하고 빛내이는 중대한 사업이다.

혁명가는 진심으로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준다.

자기의 친혈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심없는 진심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위해주는 인간의 아름답고 훌륭한 풍모는 후대들에 대한 말없는 교양사업이다.

전쟁참가자들, 승리자들에 대한 고귀한 추억과 존대는 위대한 정신과 투쟁기풍의 계승이다.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항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피붙은 당원증들앞에, 꽃나이청춘을 바친 영웅들의 사진앞에 서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놓고 자부하기에 앞서 피에 젖은 가슴으로 조국의 촌토를 끌어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전화의 용사들, 붉은 피로 락동강을 물들인 전쟁참가자들의 공적앞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할것이며 그들의 넋을 이어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정신, 반미계급의식으로 심장이 세차게 고동칠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또다시 6.25의 불구름이 타오른다 하여도 한치한치의 땅을 사수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의 뒤를 이어 침략자들과 피의 결산을 하여 영원한 승리의 7.27을 안아올 불타는 결의로 더운 피를 끓일것이다.

당에서 전승절을 크게 쇠자고 하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세우자는데 있습니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전쟁로병들에 대한 이런 위대한 뜻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침략자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은 세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선군혁명대오에서 그들의 영웅적군상과 나란히 보폭을 함께 하려는것이 승리의 7.27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는 우리 천만군민의 비상히 앙양된 사상감정이다.

전쟁로병들이 나이가 많은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시며 그들을 존중하고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늘 간곡히 당부하시며 색다른것이 하나 생기여도 전쟁로병들부터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날 한사람한사람 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앓지 말고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계시라고 다정히 이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온 나라 로병들모두가 영광의 그 순간에 산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값높은 생을 누리는 우리 전쟁로병들보다 더 긍지높은 로병들은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량 순

# 전승세대의 위훈을 빛내여주시며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을 앞두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전승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백배해주고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얼마나 은혜로운것인가.

력사의 준엄한 년대들에 로병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공적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영원하기에 전승세대의 위훈은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주체85(1996)년 5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과의 싸움에서 커다란 공로를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은 혁명의 1세대들과 함께 혁명의 2세대들이 피흘려 싸웠기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배치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그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력사적사실들을 사적물이나 사진을 가지고 교양하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주는 감흥과 교양적효과가 클뿐아니라 본인들도 지난 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정다할수 있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심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지나온 우리 혁명의 년대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운 전세대 혁명가들의 위훈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대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발표하신 우리 장군님,

전쟁로병들의 위훈을 영원히 빛내여주실 숭고한 의지를 그이께서는 로작의 구절마다에 뜨겁게 담으시였다.

그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자들과 영웅적으로 싸워 용맹떨친 전쟁로병들이 복대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일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지금 온 나라에는 전쟁로병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는 사회적기풍이 날을 따라 더 활짝 꽃펴나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기에 전승세대의 위훈은 영원한것이며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지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리 금 분

# 우리 혁명의 정신적유산—조국수호정신

지난해 7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고,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라고,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양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켰으며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혁명정신의 빛나는 계승속에 승리적전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이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총화이기도 하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고계신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101(2012)년의 전승절경축행사의 나날들을 뜨겁게 돌이켜보군 한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인 전승절경축행사를 진행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행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우리의 전쟁로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도 차려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마다에 새겨안은것은 전쟁로병들이야말로 우리모두가 높이 떠받들어야 할 혁명선배들이며 그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라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였다.

전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아름다운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그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그 숭고한 뜻이 얼마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에 대한 가장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인 우리의 로병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승리를 영원히 조선의것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철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 오늘의 긍지높은 이 회합이야말로 백두산대국의 또 하나의 경사인 동시에 당의 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의 힘있는 파시이다.

하기에 력사적인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뜻깊게 맞이하며 이 나라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철리를 심장마다에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는다.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24일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한치한치의 조국땅을 피로써 지켜싸운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만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숙소마다에 흘러넘치고있었다.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평해동지, 조연준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무력기관 일군들이 숙소를 찾아 로병들을 만났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에도 사회주의건설과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로병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로병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영웅적 위훈과 공적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새겨주시였으며 뜻깊은 올해에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해주시였다고 일군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의 투쟁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로병들이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우는데서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당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부강조국건설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반제반미대결전의 영용한 참전자, 로병의 값높은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대표단 단장 와짐 꾸지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건축미학적으로,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의 자욱을 느낄수 있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훌륭히 건설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영웅들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되고있다.

영웅들의 조국수호정신과 위훈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렬사묘의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그 설계와 건설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신 김정은동지는 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분이시다.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 쯔. 민즈바드가르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조선의 새 세대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곳으로 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아일랜드주체사상연구소 대표 이리나 말렌꼬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설계와 시공, 군상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완성시켜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인민군렬사들의 묘비에 새겨진 영웅들의 생일과 전사한 날을 보며 조국을 위해 자기의 생을 바친 그들의 나이와 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이야말로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선렬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는 훌륭한 나라이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대표단 단원 안드레이 싸모힌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성에 대하여 새 세대들이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는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전승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며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1면에서 계속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하려드는 날강도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모략과 날조,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6.25전야와 같은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미제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감히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그 모든 곳에 단 한점의 불찌라도 튕긴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에 강력한 타격전을 개시할것이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넣고야말것이다.

연설자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성취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김철히, 군관들인 정영철, 김성호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나온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올수 있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승 62돐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전승의 7.27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로 이어갈 철석의 맹세로 끓어넘치고있다고 하면서 백두산총대로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여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조국의 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상에서도 근위부대, 싸움에서도 근위부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군장병들은 혼련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의 만능해병, 펄펄나는 바다의 싸움군으로 준비함으로써 적들이 만일 우리의 신성한 령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침략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꺾어 검푸른 바다속에 수장해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가 우리의 푸른 하늘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하늘의 육탄용사들은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멸적의 폭음높이 대지를 박차올라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갈 신념의 구호들을 힘차게 웨쳤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대회는 《7.27행진곡》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 승리자의 긍지안고 우리는 또다시 모였다

###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입니다.》

승리의 날, 전승의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격전의 나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로병도, 아직은 전쟁에 대해 책이나 영화로만 알고있는 새 세대들도 다함없는 영광과 경의, 숭엄한 추억과 맹세로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의 7.27!

전승절을 맞으며 력사를 계승하고 전통을 빛내이는 또 하나의 의의깊은 계기로 될 제4차 전국로병대회장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전화의 용사들이 모여왔다.

전승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수령의 사랑과 믿음속에 오늘도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년대의 주인공으로 삶을 빛내이는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승리자들의 대회합에 참가하게 되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온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는 로병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번 대회는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마련된 뜻깊은 대회이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로 들끓고있는 이때 이렇듯 성대한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격정이 남달리 크리라고 본다.

**전쟁로병 정춘모:** 나는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로병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이고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승 59돐을 맞으며 몸소 제2차 전국로병대회를 진행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로병대회를 전통화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력사에는 각이한 전쟁과 함께 수많은 전쟁로병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처럼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다시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는것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우리 전쟁로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이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버이품이며 영원한 행복의 요람이라는것이다.

지금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맞으며 진행된 제1차 전국로병대회를 생각할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군 한다. 그때 우리 전쟁로병들은 온 나라의 축복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서로서로 얼싸안으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셨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제일로 아끼고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이고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승 59돐을 맞으며 몸소 제2차 전국로병대회를 진행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로병대회를 전통화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력사에는 각이한 전쟁과 함께 수많은 전쟁로병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처럼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인생의 로년기에도 패기와 활력에 넘쳐 값높은 삶을 누리는 로병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기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이 후대들앞에 지닌 의무가 무엇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는가를 시대와 력사앞에 엄숙히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대회라고 본다.

**전쟁로병 김기우:**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60여년세월이 흘렀다. 몸무게가 모자라 허리춤에 조약돌을 차고 입대청원을 한 10대의 애숭이병사가 이제는 여든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적로쇠는 있어도 정신적로쇠는 있을수 없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어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바쳐 싸우던 1950년대의 영웅정신이 흐려질수 있단 말인가.

우리 전쟁로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전세대로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성스러운 의무를 더욱 똑똑히 자각했다.

지금 이 땅에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준엄한 정세와 환경은 1950년대 전화의 나날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조국해방전쟁의 영예로운 참전자들인 우리 전쟁로병들은 오늘의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이 준엄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전과 마찬가지로 원쑤의 멱살을 물어뜯어서라도 기어이 이겨야 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어느 세대이든, 어느 시대이든 반드시 전승세대, 전승시대로 영광떨칠수 있다는 진리를 새 세대들에게 똑똑히 물려주는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우리 전쟁로병들의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한다.

**전쟁로병 김영상:** 하기에 이번에 진행되는 로병대회는 승리자들의 경축대회인 동시에 우리 전쟁로병들이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혁명신념과 값높은 정신적유산을 물려주는 계승의 대회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국가무리들의 대군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랐고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 장군님의 품속에서 살아온 꿈같은 행복의 5년이 너무도 귀중했기에 죽음도 두려움없이 그처럼 용감하게 싸울수 있었다.

**전쟁로병 정춘모:** 그렇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곧 조국이시며 수령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인의 운명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내가 근 80년세월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이다.

전라북도의 시골마을에서 나서자란 나는 남조선혁명가였던 삼촌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 삼촌이 비밀리에 소중히 모시고 있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처음으로 뵈웠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우게 되였다. 그 나날 남녘겨레가 살길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심장속 깊이 새겨안게 된 나는 인민군대에 의해 고향이 해방되자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가슴에 품고 13살 어린 나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내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휘관들과 전우들을 잃고 적후에 홀로 떨어졌을 때 추호의 흔들림없이 수백리길을 걸어 대오를 찾아올수 있은것도, 가렬한 1211고지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닐수 있었던것도 나의 가슴속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절대적인 믿음, 나는 장군님의 전사라는 자부심과 배짱이 든든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전쟁로병 김기우:** 조국은 곧 수령이며 수령결사옹위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전화의 나날 우리가 피로써 확증한 진리이며 1950년대 전승세대가 오늘의 새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유산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새 세대들에게 다시한번 절절히 호소하고싶다.

조선의 운명이고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조국통일도 되고 강성국가도 반드시 일떠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일편단심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자!

우리 전쟁로병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애국주의정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로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기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심장속에서 끓고있는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앞으로 건강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총정다해 받들어 모시며 후대들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글 본사기자 리 남 호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 전국로병대회력사의 갈피를 더듬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해마다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맞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전국로병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미제의《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조선인민의 영웅성과 불패성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의 나날 참가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경축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 및 100만 군중시위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준공식에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제1차 전국로병대회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결사적으로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정복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뚜렷이 보여준 력사적인 대회였다.

우리 혁명의 2세인 전쟁로병들의 위훈을 제일로 빛내여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한량없는 사랑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만방에 빛내이시기 위해 전승 59돐을 맞으며 몸소 제2차 전국로병대회를 진행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평양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특별히 초청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의 숙식과 참관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고 로병들에게 수여할 대표증에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광장의 단상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도록 해주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제2차 전국로병대회에 이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제3차 전국로병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자들의 대축전, 온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속군복을 벗지 않고 한생을 빛내여온 전쟁로병들이 전쟁시기에 입었던것과 같은 군복을 입고 경축행사에 참가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행사기간 대표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대회의 나날 전쟁로병대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3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모두에게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뜻깊게 진행되여온 승리자들의 대회합인 전국로병대회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계기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1950년대에 발휘한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 강성조선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를 만천하에 더욱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여든세살에 받은 영웅칭호

내가 두해전 83살 고령의 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선뜻 믿기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나는 오늘 인생말년에도 금별메달의 수훈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해방천 대대로 소작살이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 가정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땅의 주인이 되여 참된 삶을 꽃피울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 너무도 귀중해 나는 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비행사가 될것을 결심하고 호미를 쥐였던 손에 비행기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수적, 기술적우세를 뽐내는 미제공중비적들과의 전투에서 우리들은 주체적인 공군전법과 전술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신념을 안고 적기와 당당히 맞서싸웠다.

나도 스무살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전화의 나날 어엿한 비행중대장으로 자라나 수십차례의 공중전투에서 근위부대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칠수 있었다.

철산반도상공에서의 공중전 때였다. 지휘부로부터 수풍쪽으로 올라가는 적기들을 소멸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받은 우리 비행대는 멸적의 기세드높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전투에 진입한 나는 빠른 속도로 적기 한대를 바싹 물고 뒤따르는척 하다가 눈깜빡할 사이에 급상승선회로 비행방향을 바꾸었다. 그때 벌써 내 주위로는 숱한 적기들이 달려들고있었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전법으로 무장한 나는 배심이 든든했다.

우리 추격기편대의 령활한 전법에 걸려 적기무리속에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비행기에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다. 그리고 재차 아군주도기에 달라붙은 적기 2대를 추격하여 한대를 격추시킨 다음 당황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하는 적기무리속에 뛰여들어 또 한대를 쏴떨구었다.

이렇게 철산반도상공공중전에서 적기 3대를 격추시키고 그 후 구성지구상공에서 있은 공중전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법대로 싸워 적비행기 한대를 보기 좋게 쏴떨굼으로써 나는 미제가 그처럼 자랑하던 최신형전투기 4대를 격추시키는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사실 이런 전투성과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싸운 인민군응사라면 누구나 거둘수 있는 평범하고도 응당한 것이였다.

하기에 나는 전쟁이 끝난 다음 근위비행련대의 대대장, 련대장을 거쳐 비행부대사단장으로 오랜 기간 복무의 길을 이어오면서도 지금껏 자기의 전투공로와 군사복무경력에 대해서 별다르게 생각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60년세월의 이끼에 덮여 본인도 감감 잊고있던 어제날의 한 평범한 전투비행사의 위훈과 공로를 헤아려보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니 사랑이면 이런 사랑, 믿음이면 이런 믿음이 또 어데 있겠는가.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던 날 나와 우리 가족모두는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그 사랑, 그 믿음이 너무도 고마와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우리는 바로 이런 위대하고도 따사로운 품에 안겨살고있다.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전쟁로병들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이야말로 진정 우리 전쟁로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이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버이품이며 영원한 행복의 요람이다.

비록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나는 앞으로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1950년대 전화의 용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있는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전쟁로병 우 인 섭

단상

## ◎ 자작나무껍질수첩 ◎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속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너성종군기자로 활동한 로병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일군들은 한사람한사람이 다 원쑤들이 한개 사단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여야 합니다.》

너성기자로서의 나의 관심은 자연히 그에게로 쏠렸다.

내가 렬처든 취재수첩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리계심로병은 이렇게 말을 뗐다.

《그 취재수첩을 보니 전쟁때 자작나무껍질수첩이 생각나누만요.》

자작나무껍질수첩, 처음 듣는 말이였다.

그가 전선통부에서 군의소 준의로 싸울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그는 이상할만큼 두툼한 편지 한통을 받게 되였다.

화선의 화약내가 물씬물씬 풍겨오는 편지봉투속에는 손바닥만 한 수첩 한권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구원해준 화선의 호랑이분대장이 보내여온 자작나무껍질로 만든 수첩이였다.

불타는 교지에서 맨손으로 화선악기를 만들어내는 락천적인 사람들, 탄약이 떨어지면 총창과 바위로 원쑤들을 때려잡을줄 아는 용감한 사나이들만이 만들어보낼수 있는 화선선물이였다.

후날 군단신문주필로 되였을때 그 수첩은 리계심로병의 취재수첩으로 되였다.

종이 한장도 귀중했다. 등사잉크도 모자랐다. 한건한건의 취재는 목숨을 내건 결사전의 순간순간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자작나무껍질 등사기가 없으면 밤새워 펜대로 글을 써서 신문을 만들어서라도 병사들에게 최고사령부의 목소리, 군단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그렇게 만들어낸 신문 한호한호는 전장에서 한개 소대나 중대의 증원도 대신했으며 병사들의 심장에 지펴진 위훈의 불길은 보총이 증기관총으로도 되고 박격포로도 되게 하였다.

전후에도 그는 그 자작나무껍질수첩을 간직하고 창작활동을 벌려 시집《영원히 너전사의 마음으로》와 함께 전선생활을 담은 중편소설《너준의의 일기》와《박우물》을 내놓아 문단에 뚜렷한 자욱을 남겼다.

나는 취재수첩에 한글자도 적어넣을수 없었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이 어떤것이며 어떤 정신으로 취재길을 탈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종군기자의 자작나무껍질수첩에 대한 이야기는 취재수첩이 아닌 나의 심장에 한글자 한글자 새겨졌던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 당의 높은 뜻 받들어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4일에 진행되였다.

장혁 철도상, 김두일 철도성 정치국장,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원웅, 제관직장 초급당비서 안원세, 로동자 강명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기업소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업원들이 지난 70년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에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 세대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최단기간안에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려행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객차들을 생산하며 객차의장품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렬차들의 형태를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며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에 뻗어있는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첫삽을 박는 각오를 안고 달라붙을것이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우리 나라 철도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변모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철도현대화를 위한 벅찬 투쟁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24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혁명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백두산녀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과 신념을 심장에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우리 당의 령도를 총정다해 받들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화환진정대《영웅들의 넋》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한 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전사들의 삶을 금별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화의 나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 시초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 전승의 고향집앞에서

박 현 철

저 낮은 추녀우에
위대한 전승의 년대를 떠이고
오늘도 서있는 집
우리 수령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최고사령부 옛집이여!

삼가 경건해지는 이 마음
소박함과 숭엄함에 눈굽젖누나
저 작은 창문으로
천리전선을 한눈에 내다보시며
전승의 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의 그 영상이 어려오는 집

조용히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
백두산장군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
놈들의 허장성세를 락엽처럼 밟으시며
이 뜨락을 거니시던
거룩한 그 발자욱소리…

그이 그어가신 붉은 화살표
찍어가신 지점마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지고
《불퇴의 선》들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더라
《하기공세》, 《추기공세》, 《신공세》들이
추풍락엽처럼 흘날렸더라

빛발치는 천리혜안으로
고지마다 승리의 만세는 터져오르고
주체의 령활한 전법들로
미제의 《상승사단》들을
상심령 함정골에 처넣은
백승의 최고사령부

김일성장군!
그이의 이름은
싸우는 조선의 승리의 기치!
그이 계시여
《최강》을 자랑하던 침략자 미제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앞에 무릎을 꺾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셨거니

땅속에 처박힌채
불발탄으로 굳어진 저 폭탄은
아메리카제국의 가련한 몰골
미제를 발밑에 딛고 서신 그이는
하늘이 낸 전설적령장

여기서 열리였다
축포가 오르던 7.27의 맑고 푸른 하늘
여기서 굽이쳐갔어라
강철의 근위부대들이
포연에 그슬린 위훈의 군기들을 펄럭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전승의 열병대오가

우리 수령님 한밤을 밝히시고
새벽창문을 여실 때마다
승리의 노을이 전 전선에 비껴가던 집
추녀는 낮아도
백두령장의 배짱과 신념이 하늘에 닿아
온 세계가 경탄으로 우러르는 집

수수하고 소박한
이 작은 집이
거만한 백악관과 펜타곤을 짓뭉개며
이 행성우에 영웅조선을 낳은
아, 위대한 전승의 고향집이여라!

### 로병들에게 영광을!

위 명 철

7월의 하늘아래
모여왔구나
전승절의 이날
원수님 불러주신 평양으로
로병들이 왔구나

조국의 자랑인 로병들이여
아름벌게 받으시라
꽃다발 꽃다발
그대들의 붉은 피 스민 땅에서
붉게붉게 피여난 꽃들이다

로병들의 가슴마다 절렁이는
훈장과 메달의 눈부신 금빛으로
더 밝고 환해진 우리의 거리
그 훈장과 메달들을
저 하늘에 높이 걸자
별처럼
해처럼

삼가 드리자 우리의 경의를
남으로 노도치던 진격의 길에
보병삽을 갈아세우고
판가리결전에 뛰여들던 날과 날들에
《김일성장군 만세!》가 메아리치던
이름모를 고지들과 그 산발들에

조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피와 목숨으로 새겨준 로병들이여
그대들은 물려주었다
영원한 피줄기로 이어갈
불타는 조국수호정신
대를 이어 떨쳐갈 승리의 전통을

위대한 그 전통은

### 불타는 고지의 랑만

류 금 석

하늘도
불에 타서 쏟아지는가
놈들의 최후발악에
조국의 고지는 불의 고지

미친듯 퍼붓는 폭탄과 포탄들
불더미
재더미를
또다시 파헤칠 때
우리네 갱도에선
둥기당당— 화선악기 노래소리

불길은 고지를 휘감았는데
시원한 화선의 갱도안엔
희한해라 흐뭇한 콩나물풍경
탄피등잔 불심지 돋구며
그리운 얼굴들을
고향의 편지속에 안아보는 용사들
양키들을 조소하며 배심좋게 웃고있었네

고지에 또다시 원쑤들 덤벼들면
어디서 솟았는가 불사조들
미제의 운명 기어이 끝장낼
불패의 힘
불멸의 정신으로 빛발친다
영광 영광을 로병들에게!

### 승 리 자

최 광 일

잠시라도
그날의 격전장 떠나면
또다시 이 땅에 포연이 흐를것만 같아
전승기념탑 승리상아래
청춘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있는가
영웅전사들이여

수류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여들며
애젊은 가슴으로
불뿜는 적화점을 막아서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서있는 영웅들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

불러보고싶구나
돌격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심장으로 적어가던 그 이름들
총창을 비껴들고
육박전에 뛰여들던 전사들을

천이랴 만이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던 이 나라
아들딸들
오직 승리를 위하여
원쑤격멸의 폭음높이
한목숨 웃으며 바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은

승리의 메부리로 솟아있는
영웅고지들과 함께
미제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전승의 년대와 함께
조국청사에 빛나는 그대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로만 불리운다
승리자!

적탄이 비발치는 교지로 치달으며
전우의 손에서 넘겨받던 그 기발처럼
너와 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혁명의 계주봉으로 이어받을
용사들의 고귀한 이름이여

그렇다
승리자!
그 이름은
최후의 반미성전에서 용맹떨칠
김정은장군의 아들딸
오, 우리들의 이름이다

침략자무리향해 불벼락을 들씌우고
연기처럼 사라지니
통쾌하다
신출귀몰하는 우리의 갱도전

그 빨찌산전법
하늘에 펼치면
적기들은 불맞은 까마귀되고
바다에 펼치면
움직이는 섬 《불티모》호도 물귀신되는
령활무쌍한 수령님 전법

불만 하다 땅우에선
제놈들이 파헤친 포탄자리마다
멸망의 무덤을 만드는 놈들
눈먼 포탄들에 고지는 낮아져도
마음속엔 승리봉이 솟구쳤거니

아, 고지는 불에 타도
용사들 웃음소린 드높았네
제 지른 불속에서 아우성치는
아메리카를 굽어보며!…

### 화 선 천 리

황 명 성

묻지 말라
군화끈을 조여매고
오늘도 걷는 병사의 훈련길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묻지 말라
땀에 젖은 군복을 벗을새없이
어찌하여
훈련길 가고 또 가는지

자욱자욱 피를 뿌리고 목숨바치며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넘고 헤쳐온 산과 강들이
이 길에 이어져있다
병사의 훈련길은 그날의 화선천리

그날의 불타는 락동강모래불이
걸음걸음 군화밑에 밟히는 길
비발치는 적탄막을 헤치며
서슴없이 내댄 전우의 등을 밟고
철조망을 넘던 그 피어린 돌격로
병사가 날아넘는 칼벼랑길에 이어졌어라

처녀들이 꽃수건 흔드는 들판
아이들의 노래소리 울리는
거리와 마을을 지난다고
병사의 마음에 포연이 걷힌다면
아, 그 모든것 불속에 잠기리

병사의 군화소리 울리는 길은
어제도 오늘도 판가리싸움길
이 길에서 날리는 명사수의 총탄은
결전의 날 미제의 가슴팍을 꿰뚫으리
산발을 뒤흔드는 명포수의 포성은
미국을 통채로 바다밑에 수장하리

구름속을 뚫고 은빛매가 날으는 하늘길
파도를 헤가르며 함선이 내닫는 바다길
무쇠철갑이 질풍쳐 달리는
그 모든 산발과 강하들이
멸적의 뢰성 울리며
화선천리로 뻗어있나니

평화로운 날에도 불비속을 걸으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병사는 군화를 벗지 않으리
조국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멈추지 말자 병사여
화선천리! 화선천리!

###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주 광 일

전승의 날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놈의 성조기를 짓밟고 선
승리자들의 머리우에
축포가 터져오르던
위대한 전승의 날!

7.27!
그날은 하루였어도
전승의 축포는 어느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멎은적 없었구나
침략의 불구름을 쳐몰아내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통장훈을 부르며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질주하는
야전차의 불빛에 실려
침략자들의 아성을 향해
불줄기처럼 뻗어가는
최고사령부의 붉은 화살표에
백두산칼바람을 일으키는 훈련장들에

전화의 불비 헤쳐가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백승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김정은장군의 발걸음을 따라
승리의 날과 달이 흐른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행성을 뒤흔들던
장군님의 그 전선길에서
악의 제국 미제를 다불러대시는
우리 원수님의 전선소식은
승리자의 환희를 안겨주는 전승소식!

통쾌하도다
멸적의 불을 뿜으며
대공으로 솟구쳐오른
탄도탄의 불줄기
날바다우에 메아리쳐가던
백두령장의 호탕한 웃음소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태여난
하늘의 꽃
첫 너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
명포수메달을 전승메달인양 번쩍이며
원수님 품에 안긴 훈련영웅들은
온 나라의 기쁨
선군조선의 자랑

오만한 미제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핵섬광으로 쳐갈기며
침략자들을 정의의 불로 다스리는
이 땅은 최후승리의 반미대결장!

영웅조선의 날과 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전승의 날
김정은장군님 이끄시는 이 조선
하늘과 땅 바다에
7.27은 흐른다
오, 승리의 7.27은 흐른다

##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녔던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전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청년들의 희열과 랑만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7.27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소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대화시 《전승의 메아리》, 녀성독창과 방창 《선군닐리리》, 녀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요술 《경축의 꽃바구니》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기치높이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시랑송과 경음악 《결전의 길로》, 녀성3중창 《매봉산의 노래》, 남성독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불비쏟아지던 전회의 나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증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에 담아 펼치였다.

합창시와 소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고야말 선군조선청년전위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영원한 조선의 승리》가 24일 전승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서시와 합창 《우리의 7.27》,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시이야기 《전호가의 메아리》, 3중창과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기악과 노래련곡 《조국보위의 노래》, 《진군 또 진군》, 《결전의 길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고 승리의 7.27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민요제창 《선군승리 웅해야》, 설화와 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천출명장들을 모시여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무대에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전선과 후방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우리 녀성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랑만적인 생활모습을 반영한 독창과 방창 《어머니의 노래》, 5중창과 합창 《샘물터에서》, 《봄노래》, 독창과 합창 《우리 님 영웅되셨네》를 비롯한 종목들이 펼쳐졌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여갈 우리 녀성들의 드팀없는 의지가 비낀 북과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시와 합창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10월의 대축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 《영원한 조선의 승리》 진행

###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 《승리는 대를 이어》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가 24일 은산군 제현리에서 진행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차병윤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은산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의 무모한 무력침공을 단호히 쳐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사수한 영웅적인민의 기상과 긍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공연은 시와 합창 《우리의 7.27》,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군사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 땅에서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승신화를 창조하며 높이 발휘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과 모습을 전시가요련곡 《해안포병의 노래》, 《열목소야 어서 가자》, 《샘물터에서》,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의 종목들에 담았다.

공연무대에는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년대기들과 더불어 부강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남성독창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이야기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 장고병창 《선군닐리리》, 재담 《경쟁열풍》, 민요련곡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 만풍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맥박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뜻깊은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갈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반영한 시와 합창 《7.27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공연은 끝났다.

##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폐막

지난 7월 17일에 개막되였던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 출전한 태권도, 바둑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폐막식이 24일 사리원시에서 진행되였다.

리원종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진행된 태권도맞서기강자경기에서 1등을 한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 남포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과 바둑개인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 바둑 남, 녀단체전경기와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한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과 태권도 몸무게급별 개인맞서기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였다.

배능만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모든 선수, 감독들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일으키며 우리식의 무도기술과 전법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떨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일요일(26일) 오전에 기관차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룡구 1급 검열경기가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벌어진다.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력기검열경기는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에서 있게 된다.

한편 26일부터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수구 1급, 청년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웰남신문 《년전》 대표단 도착

관 후이 히엔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신문 《년전》 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 독자의 편지

## 전쟁로병을 위한 뜨거운 정

몇해전 3월 뜻밖의 일로 저는 다시는 일어설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러가지 합병증까지 겹치여 전 그만 맥을 놓고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선교구역 산업종합진료소 의사 윤명희선생님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전쟁로병할머니라고 각별히 대해주던 그 친혈육같은 호담당의사를 불안고 가족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린 딸애를 친정집에 맡겨놓은 그는 저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과 같이 고열과 아픔으로 잠 못드는 저를 위해 밤을 꼬바기 새웠습니다.

담당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상급병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방도를 모색하군 하였습니다.

수기치료법까지 배워가며 정성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전화의 나날 날아오는 파편을 몸으로 막으며 부상병들을 호송하고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전우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잊지 못할 화선군의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처럼 한집안식구들과 어울려 윷놀이도 하면서 또다시 락을 누리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날 화선군의들이 넣어준 피가 꺼져가던 저의 생명을 이어주었다면 오늘은 바로 새 세대 보건일군의 뜨거운 정성이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평범한 한 호담당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커갈수록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정상적으로 돌보아주고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내 조국이 더없이 소중하게 안겨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있기에 전 두번다시 태여났습니다.

전쟁로병 배 용 녀

#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의 력사를 열어놓은 조선의 7.27

##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신 강철의 령장

## 조선은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

승리의 7.27이 다가오고있다.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온 세계 진보적인류가 이날을 경축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2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는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총국적붕괴파정을 촉진시킨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바로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승리의 7.27을 맞을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적영웅주의와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군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하고 처렬한 싸움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긁어모아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때문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였다.

주체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의 한 기자를 만나주시였다. 그때 전쟁의 전망을 우려하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타승할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고, 오래동안 식민지적압박을 받아본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조선인민군이 전체 조선인민의 끊임없는 원호와 지지를 받으며 또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싸우고있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에서 찾으시고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은 조국을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원쑤격멸의 성전에 파감히 떨쳐나섰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전민전쟁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전기간 탁월한 군사지략과 전법, 령군술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하시였다.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도덕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는 전략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규전과 유격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배합, 산악전과 야간전, 경도전 등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앞에서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는 너무나도 무력하였다. 미제의 《상승사단》이나 《하늘의 요새》도,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도 미국을 패배의 운명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전쟁 전기간 미제는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하였고 우리는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믿고 부질없이 날뛰는 미제를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하였다. 미제는 술한 주검을 남기고 패배의 치욕을 당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대비도 할수 없이 우세한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침략전쟁력사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고 으시대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패의 기록을 남겼으며 《강대성》의 신화는 휴지통에 구겨박혔다.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미국의 어느 한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김일성장군의 전법에 의하여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장성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직된 전쟁으로 특징지어진다.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얼마나 유명한지 3년간의 전쟁에서 그 전법에 걸려 패한 죄로 여러명의 〈유엔군〉 사령관들과 미8군 사령관들이 교체되였다. 마지막에는 들이밀 장성이 없었다. 〈이름난 원수〉라고 하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도 그 전법에 걸려 패하고말았다.》

조선전쟁의 결과는 세계를 놀래웠다. 이것은 말그대로 군사적기적이였고 20세기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위대한 사변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제의 야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였다.

반제반미투쟁,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기가 펼쳐지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이 촉진되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났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승리에서 힘을 얻은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 반제반미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의 《교요한 뒤동산》이라고 불러우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식민지민족해방투쟁,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붕괴되였으며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반제자주위업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하지 못한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우리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낸 지난 세기 승리의 7.27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새 세기의 7.27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며 반제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처음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전쟁은 말그대로 청소한 국가와 《초대국》사이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군대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과의 전쟁, 청소한 일개국과 련합국사이의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자가 될것인가.

미제는 처음부터 《승리는 저들의것》인듯이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그 나날 세계가 확신한것은 승리는 조선인민의것이라는 그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우리 나라에 와있던 한 외국기자가 미제의 대규모적인 《신공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쟁전망이 어떠하겠는가를 알고싶어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그날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대앞에서 전후 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낼 한 병사의 학습정형을 료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던 그는 조용히 최고사령부를 나섰다. 뒤따라 나온 일군이 왜 그러느냐고 다급히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습니다. 〈신념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하고계신다〉, 이것이 내가 쓸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가늠할수 없었던 그 엄혹한 시기에 래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마련해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물결은 저 멀리 뽈스까에서도 굽이쳤다. 주체41(1952)년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는 세계건축가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브라질의 한 건축가는 《포연이 도시와 마을, 하늘과 땅을 뒤덮은 그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보며 아름다운 화폭을 설계하는 인민, 력사는 아직 조선인민보다 더 영웅적이고 빵만적인 인민을 모를것이다. 그런 불사조의 투지와 신념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당신들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이 일떠서리라는것을 그 누가 확신하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주체41(1952)년 3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성원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마리 루이즈 모에랑도 10여일의 체류기간 보고 느낀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인민은 이기는 전쟁을 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패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여있었다. 하기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군의 한 장교는 《조선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누구도 정복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복하려는 사람은 그가 워커이든 맥아더이든 트루맨이든 결국은 나처럼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라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조선인민은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진리로 세계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오늘도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의 전통》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안아오신 전승의 력사, 조미대결전의 승리의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며 조선의 승리의 7.27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뜨리고 미국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조선반도에 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1950년대의 청소한 나라가 아니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며 방어와 공격에도 다 준비된 군사강국,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께서 제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미국의 새 전쟁도 발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의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다.

수리아의 한 인사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빛나는 전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찬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항시적인 침략책동속에서도 조선은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반미성전에서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자주위업수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반제투쟁의 본보기이다.

흔히 전쟁은 끝나야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천재적인 전략전술로 백전백승을 떨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전쟁은 시작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류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쳐물리치는 투쟁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

반미대결의 일선에서 적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셔버리며 곳곳에 일떠세운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기적을 창조하며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힘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다.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모시고있는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한 미제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세계제패전략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결전장》으로 규정한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을 조선에서부터 개시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며 72시간내에 《전쟁을 결속지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허나 그들은 오산하였다. 오히려 미제는 전쟁을 일으킨지 3일만에 서울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서막이였다. 3일이 아니라 3년통안이나 전쟁을 치르고서도 미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과 패배, 치욕뿐이였다.

1953년 7월 27일 저들의 패전과 항복을 공식인정하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한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였던 클라크의 쓰디쓴 고백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클라크의 치욕은 곧 미국의 치욕이였다.

미제는 당시 동원할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죄다 긁어모아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인류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맥아더의 《크리스마스총공세》, 릿지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 클라크의 《초토화작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

이 모든것이 풍지박산이 되였다. 《조선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하면서 5개 군단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벌린 《크리스마스총공세》만 보아도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가 폭로한것처럼 인민군대의 제2전선전법에 의하여 《미국륙군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패배》로 끝났다.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들과 악명높은 살인장군들의 《명예》가 통채로 악취풍기는 진펄속에 처박히였다. 제노라 하던 장성들이 조선전쟁에서 황천객이 되거나 씻을수 없는 수치를 당하였다. 인민군적후부대의 지휘에 걸려 개죽음을 당한 미8군사령관 워커, 비행기와 함께 한강에 처박혀 물고기밥이 된 미제9군단장 무어, 허줄한 사병차림으로 뻥소니를 치다가 《포로장군》의 오명을 들쓴 미제24사단장 떤, 부하의 태만을 시체로 만들어 《무덤장군》으로 불리운 미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제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하였다.

미제는 도덕적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히 패하였다.

《전략폭격》, 《교살작전》, 《세균전》, 《원자탄위협》 등 온갖 살인수단과 수법들을 다 써보았지만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인간과 야만인과의 싸움에서 《양키문명》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미제는 련속되는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조선전쟁기간 대통령감투를 트루맨에게서 아이젠하워에게 넘겨씌워주었고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도 맥아더, 릿지웨이, 클라크로 련속 갈아댔으며 미8군사령관 역시 워커로부터 밀번, 릿지웨이, 밴플리트, 테일러 등 5번이나 교체해보았지만 수습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패망상만 《창조》되군 하였다. 미제는 끝내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야말았다.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졌다. 오죽했으면 외신들이 《〈불패의 미국〉이라는 신화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말았다.》고 야유하였겠는가.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잃었다.

미국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의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전쟁, 메히꼬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썼다. 그렇다. 실제로 적들은 조선전쟁에서 미군 40만 5 490여명을 포함한 156만 7 120여명의 병력을 잃고 1만 2 220여대의 비행기, 3 250여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 350대의 자동차, 560여척의 함선 및 선박, 7 690여문의 포, 92만 5 150여정의 저격무기를 잃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패전의 비참상은 그들의 변함없는 소유물로, 처절한 고통의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있는 한 우리의 전승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림 원

##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은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력사적으로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온 수리아인민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1963년 아랍사회부흥당에 의하여 일어난 3월8일혁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발전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혁명승리의 결과 수리아인민에게는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수리아는 반제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면서 중동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권확장책동,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정책을 견결히 반대하고 아랍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를 못마땅해하는 미국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수리아가 테로분자들을 후원하고 이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하면서 경제제재를 가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이고있다.

지금 미국 등 서방의 로골적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이들의 지원을 받는 극단세력의 테로행위로 하여 수리아에서는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복할 수리아인민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려는 수리아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확고하다.

수리아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기의 힘을 키우는 한편 이스라엘에 강점당한 골란고원을 되찾고 령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수리아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수리아는 반정부세력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테로와 극단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위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수리아는 자국내에서 테로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수리아정부는 《반테로》의 미명하에 외국무력이 자국령토에 들어오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러한 립장밑에 수리아는 자기의 무장력에 의거하여 테로분자들의 기지에 대한 공격작전들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등 반테로투쟁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수리아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친선 및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대외활동의 폭을 넓혀나가는데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내정간섭과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박차고 발전하려는 수리아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내외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로를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수리아아랍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9돐이 되는 날이다.

김 국 철

이란에서 반이스라엘시위

## 일본의 헌법위반행위 규탄

- 방글라데슈의 한 국제문제전문가가 16일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추진하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날 일본당국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현 국제질서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일본의 그러한 처사가 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 도이췰란드신문들이 16일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추진하는 일본당국을 비난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일본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헌법위반으로 락인단죄하였다.

한편 《디 웰트》는 아베정권이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독재정치, 폭압통치의 필연적산물

최근 남조선에서 몰아치는 무시무시한 탄압선풍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피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한 민주로총 위원장에게 체포령장이 발부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4.16련대에 대한 압수수색소동이 벌어졌으며 전국교직원로동조합관계자 3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폭압사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뿐이 아니다. 전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탄압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성원들에 대한 체포, 수배소동도 감행되였다. 지어 파쑈광들은 중병으로 심하게 앓고있는 변호사의 집에까지 달려들어 강제수색놀음을 벌리는 야만적폭거도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이 살벌한 폭압정국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극악한 파쑈광 황교안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앉은 결과이라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이 악명높은 살인마가 《국무총리》의 감투를 쓴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불법무법의 탄압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지어 이전의 탄압사건들까지 다시금 부각되여 폭압광기를 더해주고있다. 이것은 결코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격이라고 볼수 없다.

황교안역도는 지난 30년간 법판의 탈을 쓰고 인민탄압에서 악명을 떨친것으로 하여 《공안통치의 행동대장》으로 락인된 악질교형리, 전형적인 파쑈광이다. 남조선정치사에 《전대미문의 마녀사냥》으로 기록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변론한자가 황교안이며 국제적비난까지 일으킨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전교조말살사건, 《자주민보》 폐간사건 등을 직접 연출한 폭군도 바로 이자이다. 황교안이 피뢰법무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은 첫해에 《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자의 파쑈적기질을 잘 알수 있다.

황교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차없이 짓밟으며 독재 《정권》의 손발노릇을 악질적으로 해온 파쑈미치광이, 피에 주린 야수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은 다 황교안의 각본과 지휘, 부추김에 따른것으로서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유린당하고 공포통치가 살판치는 남조선의 험악한 인권실태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하다면 누가 이런 극악한 파쑈분자를 피뢰국무총리로 내세우고 사회를 공포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는가.

다름아닌 현 피뢰집권자 박근혜이다.

황교안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였을 때 남조선 각계는 그의 남다른 파쑈적기질과 부정부패경력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하지만 피뢰집권자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독단과 전횡을 부리면서 황교안을 한사코 두둔하였으며 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하고야말았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비롯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부정사건들을 다 덮어버린 충견을 더 크게 써먹자는것이다.

횡포하고 잔악무도한 황교안의 파쑈깡패특기를 잘 알고있는 박근혜는 이자를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앉히고 그를 배후조종하여 진보민주세력을 초토화하고 집권위기를 모면하며 《새누리당》 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꾀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황교안을 돌격대로 내세워 독재통치를 더한층 강화함으로써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는것이 현 피뢰집권자의 흉악한 기도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조성된 무시무시한 폭압정국이 박근혜의 독재정치, 공포통치의 필연적산물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유신》 독재부활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독재사회로 전락시킨 피뢰들은 지금 저들의 엄청난 반인권적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주제넘게도 그 무슨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인류량심의 법정에 제일먼저 끌려나와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희세의 파쑈폭군들이 그 피묻은 입으로 《북인권》에 대해 횡설수설할 체면이 있는가.

피뢰들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매달리기 전에 저들의 참혹한 인권유린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남조선피뢰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독재와 폭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인민탄압에 광분해온 력대 피뢰통치배들의 비참한 말로도 그것을 말해준다.

피뢰패당은 파쑈와 폭압으로 얻을것이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은 정 철

ㄱ-51115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2-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